

“유병자 보험, 보험료 2~5배 비싸”

금감원 ‘유병자 보험상품·유의사항’ “보험료 수준·계약유지 가능성·갱신주기 확인해야”

당뇨병, 고혈압 등 만성질환자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지만 심사 과정을 줄인 간편보험이나 무심사보험에 가입하면 보험료가 2~5배 비싸나 유의할 필요가 있다.

금융감독원은 열여섯 번째 실용금융정보로 ‘유병자도 가입할 수 있는 보험상품과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유병자보험은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이 있는 사람이 가입할 수 있는 보험상품이다. 수술 1회당 30만원, 입원 1일당 3만원, 암진단금 2000만원 등 미리 약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보장성 보험이다.

10월 현재 32개 보험회사에서 52개의 유병자보험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유형은 크게 간편심사보험과 고혈압·당뇨병 특화 보험, 무심사보험 등 3가지로 나뉜다.

가입자가 가장 많은 간편심사보험은 최근 2년 이내(암은 5년) 입원·수술 이력이 없는 유병자가 가입할 수 있는 보험으로 흔히 ‘간편가입 건강보험’으로 불린다.

질병종류에 관계없이 입원비와 수술비를 보장하며 계약 전 알릴 의무를 6개월로 대폭 축소하고 입원·수술의 고지기간을 단축하는 한편, 통원·투약에 대한 계약 전 알릴 의무는 면제하고 있다.

대신 가입요건을 완화함에 따라 일반보험에 비해 보험사고 위험이 커 보험료가 1.1~2배 비싸다.

고혈압·당뇨병 특화 보험은 고혈압·당뇨병 치료병력에 대해서는 계약 전 알릴 의무를 면제하는 보험이



생존권 시수 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DB산업은행 앞에서 열린 '정부의 일방적 구조조정 방침 반대 기자회견'에서 대우조선노조 관계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다. '100살버안보험' 또는 '100 3대 질병 보장보험(고혈압·당뇨병·플랜)' 등의 명칭으로 판매되고 있다.

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등 특정 질병으로 진단되거나 사망한 경우 보장받을 수 있고 보험료는 일반보험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와 함께 가입시 혈압 및 당뇨 수치를 확인해 고혈압, 당뇨병을 가진 사람만 가입할 수 있는 보험상품도 있는데 해당 상품은 보험료가 일반보험의 2~3.5배에 달한다.

무심사보험은 질병이 있어도 가입할 수 있는 사망보장 보험이다.

모든 질병 및 치료내역에 대한 계약 전 알릴 의무와 건강검진 절차가 생략되고 보험사는 보험가입을 거절할 수 없어 질병이 있는 유병자도 손쉽게 가입할 수 있다.

단 보험기간 중 사망하는 경우에만 보장받을 수 있고, 보험료는 일반 보험보다 5배 비싸지만, 사망보험금은 통상 1~3000만원으로 다른 상품의 사망보험금에 비해 적다.

유병자보험은 갱신시 보험료가 인상된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대부분의 유병자보험은 5~10년마다 계약을 갱신해야 하는데 갱신형 보험의 경우 향후 연령 증가 등에 따라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

이창욱 보험감리실장은 “유병자보험은 가입요건이 완화된 반면에 일반보험보다 보험료가 비싸고 보장범위가 좁아 건강한 사람이 유병자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불필요하게 높은 보험료만 부담하는 등 불리하다”며 “보험료 수준 및 납입능력, 계약유지 가능성, 갱신주기 등을 충분히 고려한 후 가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도하 KB투자증권 연구원은 “자동차 손해율은 전년동기대비 8.7% 줄어든 78.1%로 큰 폭으로 하락했다”며 “일반 손해율도 전년 동기대비 8.2% 감소한 62.4%로 크게 하락하면서 전체 보험영역 수익성 개선에 기여했다”고 분석했다.

“손보업계, 연이은 사상 최대 이익”

KB투자증권, 비중 확대 의견... 동부·삼성 특목

손해보업계 이익의 연이은 사상 최대치 경신으로 손보업계 주식의 비중을 확대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KB투자증권은 1일 커버리지 손해보험 5개사의 합산 3분기 순이익이 전년동기대비 50.7% 늘어난 6745억원을 기록함에 따라 투자의견 ‘비중확대’(Overweight)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들 5개사는 9월 전년동기대비 44.5% 증가한 2015억원의 순이익을 달성했다.

커버리지 손보 5개사는 삼성화재(000810), 동부화재(005830), 현대해상(001450), 메리츠화재(000060), 한화손해보험(000370) 등이다.

손보 5개사의 3분기 합산 경과손해율은 전년동기대비 2.7% 줄어든 82.4%로 최근 5년래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이로써 사업비율이 상승했는데도 합산비율이 전년동기 대비 1.9% 감소한 101.8%로 떨어져 어닝 서프라이즈를 견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김도하 KB투자증권 연구원은 “자동차 손해율은 전년동기대비 8.7% 줄어든 78.1%로 큰 폭으로 하락했다”며 “일반 손해율도 전년 동기대비 8.2% 감소한 62.4%로 크게 하락하면서 전체 보험영역 수익성 개선에 기여했다”고 분석했다.

종목별로 삼성화재의 연중 자사주 매입 가능성은 내년으로 이연될 가능성이 높다. 대신 배당성향이 기대된다. 2016년 배당성향은 29.6%로 상향 조정되면서 배당 매력도가 부각될 전망이다.

동부화재는 3분기 비경상적 비용 발생에도 별다른 일회성 이익 없이 뛰어난 실적을 기록했다. 현대해상은 4분기에 인식될 것으로 예상됐던 중국 자회사의 재보험금 관련 손상차손 환입 452억원이 3분기에 반영된 점이 특이하다.

메리츠화재는 희망퇴직 비용과 계열사 수익증권 손상차익 395억원이 발생했지만 에어부산 지분 및 매도가능채권 등의 처분이익으로 400억원이 유입되면서 월 평균 270억원대의 순이익을 유지했다. 한화손해보험은 3분기 누적 기준 보장성 인보험 신계약 399억원으로 손보사 중 유일하게 양(+)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김 연구원은 “향후 업종 내 가장 높은 수준의 자기자본이익률(ROE)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는 동부화재, 견조한 이익과 높은 배당성향이 기대되는 삼성화재는 톱픽으로 유지한다”며 “여전히 저평가 국면에 있는 한화손해보험은 관심종목으로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뉴시스

“갤럭시노트7 이슈, S8 나올 때 잊혀질 것”

IDC 등 시장조사 전문가들 분석... “단기적인 악재에 그쳐”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7’ 발화 사태로 인한 여파가 6개월 내 수면 밑으로 가라앉을 것이라는 분석이 IT관련 시장전문 조사 기관 등에서 잇따라 나오고 있다.

1일 시장조사업체 IDC는 갤럭시7 단종 여파가 ‘단기적인 악재’에 그칠 것으로 예측했고, 영국 시장조사기관 카날리스는 “스마트폰 시장의 신규 제품 출시 사이클이 짧다는 것이 이를 가능케 할 것”이라며 이에 동의했다.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는 “스마트폰 역사상 가장 큰 사건이었던 갤럭시

노트7 발화 사태가 6개월 안에 묻힐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며 “삼성전자가 갤럭시S8을 내놓을 시기에 갤럭시7으로 받을 악영향은 희박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스마트폰 업계가 매우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데다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는 신제품과 새로운 뉴스가 삼성전자의 악재를 덮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삼성전자는 내년 2월27일부터 3월2일 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에서 갤럭시S8을 공개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삼성전자가 갤럭시S8 출시일을 앞당길 것이라는 추측이 나왔지만 삼성 측은 “출시 날짜를 앞당기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갤럭시노트7 단종이 발표된 날이 지난 10월11일인 것을 감안하면 약 6개월 뒤에 새로운 모델이 출시되는 셈이다.

안토니 스키타라 IDC 리서치 매니저는 “이번 리콜 사태로 브랜드 이미지가 단기적으로는 타격이 있을지언정 결국에는 삼성전자가 다시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서 시장 주도 기업으로

로 남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 소비자들이 갤럭시노트7 사태로 큰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점도 이 같은 분석을 뒷받침했다.

실제로 IDC가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7 생산 중단 발표 이후 4일이 지난 10월17일부터 18일까지 미국 소비자 1082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전망 속에서 삼성전자가 갤럭시노트7 발화 원인을 정확하게 밝혀내는 것은 커다란 과제라는 지적이다.

IDC의 레이몬 라마 리서치 매니저는 “삼성전자는 이번 사태에 대한 보상으로 급진적인 지원을 했지만 소비자들은 근본적인 원인과 삼성이 이를 어떻게 해결할지를 알고 싶어 한다”고 언급했다.

‘쏘나타 윈터 스페셜 에디션’ 출시

현대자동차는 쏘나타를 겨울철 맞춤형으로 제작한 ‘쏘나타 윈터 스페셜 에디션(Winter Special Edition)’을 1일부터 판매한다고 밝혔다.

쏘나타 1.6 터보 모델에 겨울철 특화 선호 사양을 확대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열선 스티어링 휠, 뒷좌석 열선 시트, 김 서림을 자동 제거해주는 ‘오토 디포징 시스템’을 기본 적용했다.

또 하나의 광원으로 상향등과 하향등을 모두 구현하는 바이펄션 방식의 스티어링 휠 움직임에 따라 길을 밝히는 스테디 밴딩 라이트를 추가한 ‘HID 헤드램프’도 적용해 겨울철 안전한 운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밖에 ▲듀얼 풀 오토 에어컨 ▲버튼시동&스마트키 시스템 ▲클러스터 이오나이지 ▲스마트 트렁크 시스템 ▲뒷좌석 암레스트(스키쓰루 포함) 등을 함께 적용했다. 여름철 선호 사



양 위주로 구성된 ‘썸머 패키지’도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다.

쏘나타 1.6 터보 모델의 가격은 ▲스타일 2420만원 ▲윈터 스페셜 에디션 2580만원 ▲스마트 2690만원 ▲스마트 스페셜 2872만원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여름철 최선호 사양을 모은 쏘나타 ‘썸머 스페셜 에디션’에 이어 겨울철 고객 선호 사양 중심인 ‘윈터 스페셜 에디션’을 합리적인 가격에 선보여 고객들이 최고의 만족감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